

‘함평 자연 생태숲길’

명품길로 재탄생한다

전남도 남도명품길 조성 공모사업 대상지 선정

‘함평 자연 생태숲길’이 내륙형 명품길로 재탄생한다.

25일 함평군에 따르면 전남도는 지난 21일 남도명품길 조성공모사업 대상지로 ‘함평 자연 생태숲길’, ‘고흥 미르마루길’, 영광 백수 노을감상길을 최종 선정했다.

남도명품길 조성사업은 자연경관은 물론 역사·문화·인물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갖춘 지역에 걸기 좋은 도보탐방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앞서 전남도는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 함평군 등 총 10개 지역이 신청서를 제출했다.

함평군은 이번 공모사업에 자연생태공원~대동저수지~대동삼수원으로 이어지는 24.83km 구간을 사업대상지로 신청해 이날 최종 대상지로 선정됐다.

남도의 생태 문화를 대표하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점, 자연생태공원·양서과종류 생태공원 등 인접한 생태관광자원이 사계절 운영되는 점 등이 ‘내륙형 명품길’로의 발전 가능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군은 오는 2021년부터 남도명품길 조성에 본격 돌입한다. 특히 현재 갖춰진 자연경관을 최

대한 보존하기 위해 콘크리트 구조물 등 인공적인 시설 설치를 자양하고 중장비 투입도 최소화할 방침이다.

다만 평가에서 다양한 생태친화적 도보 길 조성을 권고 받은 만큼, 숲길 탐방로 신규조성을 포함한 기존노선계획 조정을 전문가의 컨설팅을 거쳐 후후 실시할 계획이다.

나윤수 함평군수 권한대행은 “함평 자연 생태숲길은 최근 급증하는 국내 도보체험 여행 수요에 최적의 대안이 될 것”이라며 “지역주민을 비롯한 관련 전문가 조언을 적극 수렴해 함평만의 특색 있는 도보 명품길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함평=김광춘 기자

나주시공익활동센터,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시작

‘모樂모樂·들樂날樂’ 2개 분야 21개 단체와 협약



나주시는 지난 21일 공익활동지원센터(이하 센터) 대회의실에서

‘2019년 지역공동체활성화 주민참여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대상자들

과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 추진요령 및 회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센터가 추진해온 지역공동체활성화 지원 사업은 마을활력 증진과 자자역량 강화를 위해 주민 스스로 계획을 수립하고,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센터는 올해 ‘모樂모樂·모임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 ‘들樂날樂·민간거점 공유 공간’ 등 2개 분야 21개 팀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했다.

이날 협약을 통해 사업대상자들은 사업의 성실한 수행 및 보조금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센터는 사업대상자들의 원활한 공모사업 수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영광군 온라인(로또)복권 판매인 모집

복권수탁사업자(동행복권)는 오는 7월 29일까지 전국 시·군·구 지역을 대상으로 온라인(로또)복권 판매인을 모집한다. 영광군 모집 인원은 우선계약대상자 1명이다.

이번 모집은 온라인복권 판매점 감소에 따른 국민의 복권 구매 불

편을 해소하고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복권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판매인을 신규로 모집하는 것이다.

군은 복권기금법에 의한 우선계약대상자 1명이 모집 대상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

족의 세대주, 독립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고엽제병에 따른 후유증환자, 특수인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이 동행복권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하다.

당첨자는 무작위 전산 추첨으로 선정하고 7월 30일 오후 6시에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며 당첨자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계약대상자를 확정하게 된다.

영광=서희관 기자

담양군, 농어촌민박 운영자 서비스 안전교육 실시

민박 사업자의 친절·안전 의식 제고



담양군은 지난 25일 담양문화회관 소회의실에서 농어촌민박 운영자 150여명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과 이

용객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소방안전관리 교육과 고객만족 청취서비

스 향상, 위생교육으로 진행됐다.

이날 담양소방서 고신희 소방관은 강연에서 최근 발생한 사례중심의 안전사고 대처요령과 소화기 등 소방기기 사용법을 알기 쉽게 강의하며 유익한 시간을 제공했으며, 한국관광서비스평가원의 김진수 원장은 담양민의 특징적인 체험 서비스발굴과 고객 응대 요령 등을 강조하며, 동영상 중심의 서비스를 통해 민박운영자의 큰 호응을 이끌어 냈다.

신성호 지속가능전략국장은 “최근 민박관련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민박운영자 스스로 예방에 대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더욱 안전관리에 철저해져라”며 안전예방의 중요성을 당부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올여름엔 화순 지역 농촌교육농장서 힐링하세요”

화순 지역 농촌교육장이 운영하는 다양한 농촌체험과 치유 프로그램이 자연과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면서 일상에 친환경스트레스를 풀고 힐링을 되찾는 힐링 역할을 하면 주목받고 있다.

특히, 자녀의 여름방학을 앞두고 가족이 함께하는 휴가 장소로도 반응이 좋다. 실제 지난해 농촌진흥청이 전국 농촌교육농장 방문객 2473명을 대상으로 한 민족도 조사 결과 95.7%가 체험 프로그램에 만족했다.

농촌진흥청은 농장주의 교사 양성과정 교육 이수 여부, 교육장 환경의 안전 수준 프로그램 개발·운영 능력, 교육 운영자의 자질 등을 끼니로운 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품질인증 농장’으로 선정·관리한다.

이날 협약을 통해 사업대상자들은 사업의 성실한 수행 및 보조금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센터는 사업대상자들의 원활한 공모사업 수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게 할 수 있는 곳이다

화순읍에 있는 힐브프락은 철학자 에피쿠로스의 정원학교를 표방하는 치유농장이다.

청정 지역인 북면에 있는 솔속의 농장 베리팜은 사회적기업인 농업회사법인 베리팜이 운영하는 농장이다. 2016년 품질인증 농장으로 선정된 이 농장은 계절별 유기농 체험학습 프로그램으로 인기다. 블루베리를 소재로 한 프로그램이 특징이다. 블루베리 묘목심기 부터 수확과 펩 만들기, 목공에 체험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이 뛰놀며 자연과 교감하고 먹거리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다. 또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가족 간 유대감을 키울 수 있는 사계절 이용할 수 있는 캠핑장도 있다. 한여름에도 자연과 어우러진 ‘가족 힐링 팬파티’를 자유롭

게 할 수 있는 곳이다. 힐브프락은 자연과 흙과 사람의 함께하는 행복한 교육을 강조한다. 이에 치유음식 만들기·꿈과 희망을 주는 생애설계·힐링원에 등 오감 중심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연잎밥, 허브 와인, 허브 오일 허브 소금 만들기 등 치유 음식 체험이 특색이다.

화순=박순철 기자

장흥군, 구인·구직 가교 역할 나서

민원실서 ‘찾아가는 현장 일자리 상담’ 실시



장흥군은 지난 24일에 군청 종합

민원실에서 ‘찾아가는 현장 일자리 상담’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군은 구직자에게 1대 1 일자리 상담을 실시하고 맞춤형 취업 정보를 제공했다.

이번 상담은 장흥군 일자리상담사와 전남 일자리상담센터 상담

사가 진행했다.

장흥군은 지난 24일에 군청 종합

민원실에서 ‘찾아가는 현장 일자리

약계층, 구인업체 등을 대상으로 취업상담과 직업훈련 정보를 안내했다.

찾아오는 구직자 및 구인업체가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군 관계자는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통해 구직자들이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군민들이 감동할 수 있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군 일자리창출팀(061-860-0362)으로 문의하면 더욱 자세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장흥=송호빈 기자

